

④ 북한산 도봉옛길 그리고 광륜사, 능원사, 도봉사

계절이 변하고 있다. 하늘은 하늘 위에 하늘을 쌓고, 바람은 어느새 옷깃을 파고든다. 들어선 숲길의 그늘 위에서 더운 발자국이 식고, 숲을 채우고 있는 푸른 잎들의 대형은 차가운 하늘에 흐르는 철새의 군무를 닮아가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18구간 '도봉옛길'이다.

도봉1동 340번지 다락원에서 시작해서 도봉동 무수골까지 걷는 길이다. 다락원은 조선시대 여행하는 관원을 위한 원(院)이었는데 원집이 다락으로 되었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무수(無愁)골은 세종이 다녀가면서 붙인 이름으로, 물 좋고 풍광이 좋아 근심이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리는 3.1km이며, 보통 걸음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길은 험하지 않다. 길에는 광륜사(光輪寺)와 능원사(能圓寺), 도봉사(道峰寺)가 있다. 이들 절은 둘레길에 바로 문을 대고 있어 쉽게 들를 수 있다. 도봉옛길은 도봉산과 이어지는 구간으로 다락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다락원에서 700m 지점인 광륜사부터 걷는 방법이 있다.

둘레길과 흙길을 지나면 구불구불한 오르막이 시작된다. 아직은 태양에 힘이 좀 있다. 걷기 시작하자마자 땀이 흐른다. 소나무 숲 사이로 언뜻언뜻 보



도봉 옛길을 찾은 불자와 등산객들이 부처님 벽화가 그려진 도봉사 담장길을 걷고있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 30m쯤 오르면 작은 마당과 법당이 있는데 경내가 공원같다.

개미도 길을 걷고, 까치도 예불소리 듣는다

능선들을 바라보면서 700m 정도 걸으면 내리막이 시작되고 자운봉으로 가는 등산로와 만난다. 등산로와 만날 때쯤 작은 절 돌담이 눈에 들어왔다. 돌담 앞에는 밤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여름 내 새들이 노래를 적던 나뭇가지엔 팽팽하게 부른 밤알들이 걸려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길이 바뀌는 것이었다. 반쯤 열린 문에 금강역사가 팔을 걷고 서있다. 광륜사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금강역사의 눈을 겨우 피해 절에 들었다. 10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다. 광륜사는 673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당시의 이름은 만장사(萬丈寺)였으며, 천축사, 영국사와 함께 도봉산의 대표적인 가람이 되었으나, 조선 중기에 들어 양주목사 남언경에 의해 영국사(현 도봉서원)가 폐사되었고, 만장사 또한 쇠락해오다 임진왜란 때 거의 대부분 소실됐다. 조선 후기에 조대비 신정(神貞)왕후(1808-1890)가 부친인 품은 부원

군 조만영이 죽자 풍양 조씨 선산과 인접하고 산수가 수려한 도봉산 입구에 새로 만장사라 절을 짓고 만년을 보냈는데, 지금의 광륜사다. 1970년에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고, 2002년 당시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곡성 성륜사 조실 무주당 청화 스님(1923-2003)이 광륜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대웅전에는 불자 한 분이 청화 스님 진영 밑에서 독경을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 위에 감은 눈을 올려놓고 한 자 한 자 읽어간다. 멀리서 보니 수월관음도가 따로 없다. 10년 전 그날, 청화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극락 세계가 저 십만억 국토를 넘어서 있다. 또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우리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염불도 못되고, 참다운 선도 못됩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가 밖에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음 밖에서 찾지 마세

요." 법회가 끝나고 법당을 나와 기자의 카메라 안으로 콧웃하게 들어오던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인사하는 이들의 시선을 일일이 시선으로 꼭 쥐어주던 스님의 눈빛은 따뜻하고 넓었다. 선지식의 눈은 밝음으로 빛나기 보다는 따뜻함으로 빛났고, 높음으로 우러러 보이기보다는 넓음으로 우러러 보였다. 방안에 들어 인사를 드릴 때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으로 모든 이의 인사를 받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을 걸을 때마다 옛날이 떠올랐다. 스님은 이듬해

그림처럼 걸려있다. 황금빛 단청을 감상하고 능원사를 나와 200m쯤 걸으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려진 벽화를 만나게 된다. 도봉사다. 둘레길 한편에 그려진 탕화를 감상하며 도랑에 들었다. 경사진 길을 30m쯤 오르면 작은 마당과 법당이 있다. 공원 같다. 도봉사는 고려 때 해거국사(899-974)가 창건했다. 고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도봉사에서 정사를 봤다. 전쟁과 화재로 여러 번 소실과 중수를 거듭해오던 도봉사는 1961년 백암 스님이 법당 및 부속 전각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당에서 스님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 마당엔 까치 한 쌍이 날개를 잇은 듯 거닐고, 법당으로 오르는 둘레길 위에는 개미들이 줄지어 가고 있다. "개미행렬이 /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 결코 / 이 세상이 / 사람만의 것이 아닐까 / 오늘도 / 내일도 / 또 내일도 /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는 것인지 몰라 // 햇볕이 솟발처럼 뜨거운 한낮 빠주기 소리가 그쳤다" 고은의 시다. 마당을 거닐던 까치 한 쌍이 날개를 찾은 것 같다. 예불이 끝나자 숲으로 날아간다. 예불소리 또한 사람만이 듣는 것은 아니었다.

도봉사를 나와 다시 둘레길에 선다. 걷다보니 곳곳에 안내판이 있다. '도토리거위벌레의 알 낳기', '쭈뼌나무' 등 숲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가을철 탐방로에는 도토리를 매단 채 떨어져 있는 참나무 가지들이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 주인공은 도토리거위벌레다. 여물지 않은 도토리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은 후 가지를 주둥이로 잘라 땅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앞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고 자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숲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숲도 사람들과의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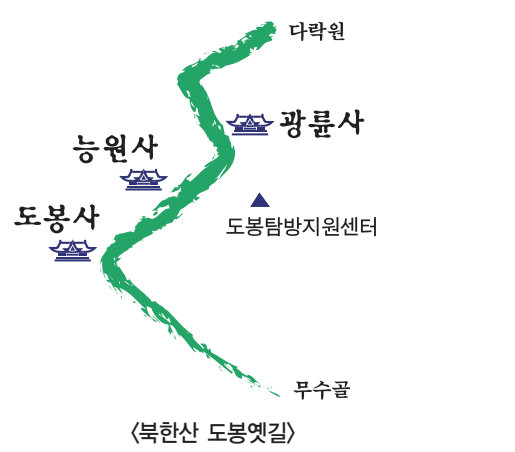
도봉사를 지나면서 부터는 거의 내리막이다. 쉽다. 갑자기 숲이 시끄러워졌다. 소나기다. 비가 내는 소리인지 숲이 내는 소리인지. 숲은 시끄러웠다. 지나온 길이 비에 젖었고, 남아 있는 길도 젖었다. 젖은 둘레길을 빠져나오자 소나기가 그쳤다. 3km의 둘레길, 도봉옛길을 걸으면 세 곳의 절을 만날 수 있다. 선지식의 기억이 남아 있는 광륜사. 초록빛 숲에 걸린 황금빛 그림 능원사. 그리고 고은의 시가 떠오르는 도봉사다. 3km의 길 위에 그렇게 세간과 출세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2002년 청화 스님이 문을 연 광륜사



숲 속의 황금빛 그림같은 능원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입 종 안 내 ◆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정적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회담 시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총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봉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재)일봉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 · 교육 · 수행종단 · 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봉"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봉문도와 일봉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전국교구 총무원 ※

- 경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 경북부교구원장 : 지선(통일안국사) ☎ 031-876-2235
-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 전북교구원장 :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 충청교구원장 : 상원(해천사) ☎ 044-863-5582
- 제주교구원장 : 대성(일봉총법원) ☎ 064-702-2328
- 대전교구원장 : 정원(삼성암) ☎ 042-583-1009
- 부산교구원장 : 정일(자광사) ☎ 055-342-3551
- 울산교구원장 : 지운(운지암) ☎ 052-260-4897
- 대구교구원장 : 보각(지장사) ☎ 054-482-1071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총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륵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전송 041)566-6141